

# 10월 연휴 6억 명 여행길 오른다

1500곳 관광명소 무료·할인 입장  
“여행기간 코로나 방역 소홀해선 안돼”

오는 10월 연휴에는 6억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국경절 연휴는 1~8일로, 8일동안 6억명이 관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중신경위(中新经纬)가 씨트립 데이터를 인용, 보도했다. 10월 연휴기간에는 전국 1500여 개 관광명소들이 무료 입장 또는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내세우며 관광객 몰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마펑위(马蜂窝) 조사자료에 따르면, 연휴기간 여행 피크는 9월 30일과 10월 1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씨트립 측에 따르면 항공편 이용은 9월 29일, 10월 4일, 10월 9일에 가장 많은 여행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는 여행기간 코로나19 대비에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여행 시 손 소독제, 소독티슈, 마스크 등 필수품



들을 챙기고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씻기, 다른 사람과 접촉 시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했다.

가

## 하이난면세점 방문자 ‘블랙 리스트’ 공개

3년간 이용 불가

중국세관총서가 하이난면세점(海南免税店) 방문자 블랙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블랙 리스트에는 219명의 관광객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앞으로 3년동안 하이난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24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이 보도했다. 세관은 규정을 위반한 219명 관광객들에 대해 ‘3년동안 하이난면세점 상품을 구입할 수 없다’는 처벌을 내

렸다. 또 면세상품을 제한지역 밖으로 빼돌리려다가 적발된 364명에 대해서는 면세품을 휴대하고 하이난을 떠날 때까지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블랙 리스트에 오른 219명 가운데서 일부는 면세품을 하이난성 내에서 이용하다가 적발됐고 일부는 면세품을 되팔아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적발됐다. 한편, 중국은 지난 7월 하이난다오를 세계적인 자유무역항으로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하



이난 관광객의 면세 구매 한도를 3만 위안(500만원)에서 10만 위안(17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아이폰 등 전자제품 면세 항목 대폭 추가하는 등 과격적인 대우를 부여했다.

가

## 중 본토 주민 마카오여행 전면 허용

코로나로 막혔던 마카오 여행길이 다시 뚫렸다.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주하이(珠海)와 광둥성을 대상으로 허용해온 마카오여행을 전국 범위로 확대키로 했다고 24일 환구시보(环球时报)가 전했다. 중국은 23일부터 본토 주민들의 마카오여행 비자발급을 재개, 마카오 여행시 7일 유효기간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또는 7일 이내 핵산

검사 음성정보가 담긴 젠강마(健康码)를 제시토록 했다. 마카오일보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주하이와 광둥성의 마카오 여행이 허용된 후 마카오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마카오 입국 여행자는 전달에 비해 2.1배 증가한 22만 7100명에 달했는데 이 중 20만명이 중국본토 관광객이다.

이에 따라 마카오 여행 범위 확대 및 오는 10월 연휴 효과까지 겹치면서 관광업계에서는 기대에 부푼 분위기다. 마카오여행국은 최근 마카오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1억마카오달러 소비쿠폰 발행에 나섰다. 마카오호텔 예약 시 최대 50% 할인 받을 수 있는 소비쿠폰의 경우 한 장당 최대 500마카오달러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

## 이제는 반려동물도 ‘생방송’ 시대

연매출 5조, 하루 100만 명 동물방송 시청  
향후 5년간 15%씩 성장 기대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지방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출연한다는 중국의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이제는 애완동물까지 확대됐다. 21일 인민일보(人民日报)에 따르면 2019년 중국 반려동물 소비 시장 규모가 2024억 위안을 돌파해 전년 동기대비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로나19 ‘언택트 시대’로 돌입하면서 ‘랜선 애견인’이 크게 증가했다. 온라인에서 애완동물을 보고 즐기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콰이서우(快手) 데이터 센터가 발표한 ‘2020 콰이서우 애완동물 생태 보고서’에 따르면 애완동물 관련 영상의 하루 최고 시청 횟수는 7억 뷰를 넘어섰다. 2020년 5월까지 5.4초마다 애완동물과 관련한 방송이 나왔고 평균 방송 시간은 1시간 가량이었다. 하루 평균 방송되는 시간은 총 1만 6000시간에 달했다.

이런 영상을 시청하는 구독자는 약 1억 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애완동물 관련 크리에이터는 7만 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80~1990년대 생이 동물 크리에이터의 80%를 차지했다.

올해 3월 타오바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타오바오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동물 관련 방송이 전년 대비 375%의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하루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이 온라인으로 동물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국민 애완동물인 개와 고양이 외에도 햄스터, 파충류, 거북 등의 동물들도 사랑을 받았다. 알파카 관련 영상은 하루 평균 120만 뷰 이상, 카멜레온은 하루 평균 60만 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애완동물 관련 생방송이 늘면서 온라인 소비도 늘고 있다. 올해 8월 열린 제23회 아시아 애완동물전시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애완동물 관련 온라인 매출은 3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이중 텐마오 타오바오가 70%를 차지하고 있고, 텐마오의 애완동물 브랜드 매출 성장이 60% 이상을 넘어섰다. 특히 애완동물 시장에서 애완동물의 식품이 가장 많이 판매했다. 2019년 개 한마리 당 식품 소비는 6082위안에 달했고, 고양이의 경우 평균 4755위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여성(她, 타), 남성(他, 타)경제에 이어 이제는 중국에서 동물들 타(它)경제가 유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중국의 애완동물 보유율은 4.4%로 가장 높은 상하이도 19.8%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은 이 비율이 68%에 달하고 현재 중국의 애완동물 시장 규모도 미국의 1/3, 일본의 1/5에 불과해 향후 5년 동안 매년 15%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자유여행 전문 현지 여행사 히말라야투어가 함께합니다

♥ 해발 3,200m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실�크로드 청해호 ♥ 1박 2일 ~ 7박 8일 맞춤형 드라이빙 자유 여행

하늘의 거울, 차카염호(茶卡盐湖)

중국의 물디브 동타지나이얼호(东台吉乃尔湖)

천혜의 자연유산, 라지산(拉脊山)

중국 최대 염수호, 청해호(青海湖)

모래가 그린 그림, 바단지린(巴丹吉林) 사막



- 01 청해호, 차카염호, 일월산 1박2일
- 02 칠채산, 어지나호양림, 바단지린 사막
- 03 SUV로 달리는 바단지린사막 드라이빙 투어

- 04 서울면적의 7.5배~유채화꽃 평원 청해호
- 05 일생 동안 꼭 보고 싶은 곳 차카염호
- 06 실�크로드의 복도, 하서주랑(河西走廊)

